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7월 19일(주일) 제1304호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 대상 ... 7월 18~27일 참가신청
8월 3일, 10일 기도모임, 8월 24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

믿지 않는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건네 줄 절호의 기회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찾아온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8월 24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막 오른다.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들이 대상이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에서 부모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7월 18일(토)부터 27일(월)까지 주일에는 맞춤전도집회 안내데스크, 평일에는 목회행정실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하면 된다. 150명(부모 포함 총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전도사역본부에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톡플러스친)에서 '행복드림2020'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야 한다. 집회 안내, 공지 알림, 유튜브 및 웨비나

URL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공지하기 때문이다.

8월 3일(월)과 10일(월) 오후 8시에는 요청자 화상기도모임을 Zoom으로 실시한다. 화상기도모임에서는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세부 프로그램 안내, 사전준비 내용 등을 안내해 준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신청자들은 두 번의 화상기도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

8월 24일(월) 오후 8시에는 행복드림콘서트가 유튜브 라이브로 열린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신인선, 색소폰 이광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교육과 세례식도 준비되어 있다. 9월 27일(주일) 오후 5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세부장소 추후공지)에서 세례교육을 하고,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온라인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X

YouTube

2020년 8월 24일(월) 오후8시
온누리교회 유튜브채널

진행 이무송, 가수 노사연, 가수 신인선, 색소폰 이광재

접수: 주일통합데스크, 평일 목회지원실

문의: 02-3215-3214, 010-9646-4214

오후 7시 열린새신자예배(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세례를 준다.

문의: 02-3215-3214, 010-9646-4214

홈페이지: www.onnuri.org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미등록교인 하반기 예배당 예약 안내

아이스쿨 회원 가입 및 일회성 바코드 발급

202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교인도 예배당 예배참석이 가능해진다. 예배당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기를 원하는 미등록교인은 아이스쿨(ischool.onnuri.org/ischool) 회원가입 이후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아이스쿨 회원가입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아이스쿨 가입을 원하지 않는 미등록교인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 마련된 임시행정실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일회성 바코드를 발급받아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바코드로는 예배예약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



/ 김영선 기자

CGNTV 개국 15주년 시청수기 공모전

8월 28일까지 원고 A4 1장 또는 2~3분 내외 영상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아 시청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오는 8월 28일까지 A4용지 1~2장 내외의 글이나 2~5분 내외의 영상을 접수받는다. CGN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느낀 감사와 회복이야기, 선교지에서 CGNTV를 시청하면서 받은 은혜 등을 진솔하게 담으면

된다.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당선작은 오는 9월 4일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발표한다. 입상자에게는 스마트폰, TV, 백화점 상품권 등의 상품이 주어진다.

더욱 자세한 참여방법은 CGN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5-9518

2000선교본부, 新선교플랫폼 구축

기획, 설계, 개발 위한 IT분야 재능기부자 모집

2000선교본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선교가 어려워진 선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교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선교플랫폼 기획과 설계, 개발을 위한 IT분야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IT 서비스 기획자 1~2명, 웹디자이너 2~3명, 웹 퍼블리셔 2~3명,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2~3명(Linux 기반 Cloud환경 개발), 데이터베이스 1명, 앱

개발(안드로이드, 아이폰) 2~3명이다.

2000선교본부에서 새롭게 구축하는 선교플랫폼은 웹을 기반으로 현지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능기부자 검색 및 필요한 재능기부 내용 게시, 온라인 아웃리치, 온라인 마켓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2000선교본부 02-3215-3211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자 및 범위 배정

8월 30일까지 각 공동체 총무에게 제출

지난 7월 5일(주일)부터 시작된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자 신청 및 필사범위(분량) 배정이 완료됐다. 필사지와 에스라 프로젝트 가이드 배분 또한 완료됐다. 8월 30일(주일)까지 배정된 분량의 성경말씀(우리말성경)을 필사해서 각 공동체 총무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지현 장로(강촌공동체)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에스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김태청 형제(SNS공동체)는 "성경필사를 하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느끼고 싶다"고 소망했다. 문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동성애는 유전되는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동성애자들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동성애가 유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유전에 의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성정체성의 혼란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

며 그들의 성적취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Hamer 등이 1993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여성염색체(X Chromosome)의 Xq28 부위에 게이의 성행동과 연관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논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Xq28 부위에 게이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여러 논문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8월 30일 Ganna 등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사이언스와 네이처의 편집자들은 각각 “동성애를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는 없다”, “게이 유전자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했다. 이로써 의학계에서는 1993년 이래 지속되어 온 동성애의 유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47만 명의 압도적인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 연구는 동성애자들이 포함된 114가족의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Ganna 등의 연구는 47만 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훨씬 높다.

둘째, 정밀하고 신뢰도가 훨씬 높은 유전체 분석방법(chromosome linkage analysis)이라는 불확실하고, 오래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는 전장유전체 연관분석(GWAS, genome-wide association study)이라는 DNA 염기서열 전체를 하나씩 비교하는 가장 정밀한 최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다.

셋째, 동성애 운동단체가 사전에 참여하여 연구대상의 선정, 연구결과의 분석방법, 표현방법 등 모든 부분을 연구팀과 조율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반대집단으로부터 항상 제기되던 편파성 시비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Xq28 부위에 존재할 것으로 보고되었던 게이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대신 동성애와 연관된 5군데의 단일염기변이(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 5개의 SNP로는 동성애와 관련된 성행동의 1% 밖에 설명할 수 없

며, 동성애와 같은 복잡한 성 행동양식은 훨씬 많은 유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동성애는 다양한 정신질환들에서 발견되는 SNP들을 공유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주관적인 불행감이 높거나 외로움을 잘 타는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유전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또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잘 선택하는 행동양식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음주, 흡연, 대마초나 마약 같은 중독성이 강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는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유전적 요소를 공유한다. 이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어린 나이에 성관계나 출산을 시작하고, 성 상대자 수가 많은 사람들과 유전적 소인을 공유한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로 전통 성윤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충동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성 행동 중 하나이다. 또한 성 상대자가 엄청나게 많은 도박적 성행위의 한 형태이다. 성행위를 일찍 시작할수록 동성애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오래 지속할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 질환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성행동 양식이 유전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

들다. 그 의문에 대해 Ganna 등의 이번 논문은 과학적인 결론을 내린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될 수 없다. 성경은 간음, 근친상간, 수간 같은 다른 성적인 죄와 함께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의 목록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죄의 경계선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갈등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죄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첫걸음은 두렵고 떨리지만 점점 쉬워지고 담대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서 멀리 떨어진 거룩을 이루라고 명하신 이유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죄의 경계선을 드나들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폐기되고 자신을 정당화할 새 기준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 윤리의 기준을 부정한다.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공공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절대적 윤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된 법의 문제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본적 문제이다.

묵상: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꾼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자.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먼저 믿은 자들이 보여주는 사랑!

“콩팥 할머니 왔어”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신다.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80세 어르신이다. 혈압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연세도 있으셔서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몰라 예수님 믿으라고 몇 번 권유했는데 듣지 않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이 사는 큰아들이 절에 다니기 때문에 거절하셨던 것이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얽혀 있으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다. 바로 ‘먼저 믿은 자들이 보여주는 사랑’이다. 그 어르신도 둘째 며느리의 사랑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종합병원을 다니다가 나아지는 게 없다며 둘째 며느리와 함께 우리 병원에 오셨다.

둘째 며느리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오는 며느리를 보면 친정엄마와 딸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 정성이 대단하다. 그 모습을 보며 어르신께 다시 예수님

을 전하고 싶었다. 어르신께 평소 접촉점 질문으로 잘 사용하는 질문을 던졌다.

“교회에 다니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어르신은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자녀를 찾다가 나중에는 이사도 안 가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처럼 어르신을 기다리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나 같으면 며느리 봐서라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얼굴이 약간 굳어지며 아무 대답 없이 나가셨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오신 어르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했어. 며느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어르신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 이처럼 사랑(며느리의 섬김)은 전도대상자의 마음 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하다. 금방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을 전하면 결국에는 열린다.

“원장님, 지난번 지역 신문에 난 원장님 기

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병원에 내원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한 환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퍼져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실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데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서 “원장님은 항상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는다. 나도 사람이기에 환자들을 대하면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마다 회회하며 내 직장(병원)이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환자를 대하려고 애쓴다. ‘사랑은 줄 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내 마음 속에 평안이 가득한 것을 느낀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종종 언론을 통해 교회의 분쟁이 세상에 알려진다. 분쟁이 오래 지속되면 그 교회 주변 주민들을 전도하기가 어렵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내 분이 일어나더니 법정까지 간 데다 경찰이 와서 싸움을 말리는 일까지 생겼다. 수년 동안 분쟁이 지속되면서 불합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다.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 교회 주변 주민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사랑이 흐를 때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린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진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에는 분명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아픔과 상처와 끔찍한 일들의 이면에는 분명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어둠의 세력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재물, 경험으로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 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동안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넓게는 영적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영적 공격이며,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장면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대하셨는지, 어떤 원리로, 무엇을 붙잡고 승리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나 본능을 공격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3절).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단순히 기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시다

마태복음 4:1~11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말은 가정법 같지만,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주림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당신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구태여 고통 받을 필요가 있는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 한편이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배고픔에 처해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본능과 결핍된 본능을 공격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지침이 된 이후에도 우리를 마귀로 만들지 않을 본능은 없습니다.”

어떤 본능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만족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마귀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법칙과 자연법(도덕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자연법칙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모든 자연과 우주에 담겨 있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이 존속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연법칙은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키게 됩니다.

둘째, 인간 안에 있는 자연법입니다. ‘도덕률’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인간본성의 법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입니다. 자연법칙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연법칙은 무시위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자연법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어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자연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압니다. 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도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

해서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교육도 아니고, 본능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법칙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도 옳다고 해야 하는데 다른 주장을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모든 인간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하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법칙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도 자연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인간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연법 중에서 어떤 것은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의 성입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염색체나 유전자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자연과학 법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열역학법칙을 어기고, 자연 속에서 발견된 과학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없는 과학으로도 증명된 자연법칙을 어기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법칙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에 있는 자연법, 도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뉴욕주에서 31개 성을 인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성을 자기가 태어날 때는 X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성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냅니다. 시설 사용이나 채용 등 모든 면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성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존재하지 않는 성이 제3의 성이 아니라 31개, 혹은 수십 개의 성을 인정하게 될 때 자연법칙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도덕률은 마치 수학의 세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수학공식에 반기를 드는 학생 봤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려면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다른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학의 세계는 자연법칙 안에 있는 질서를 가져온 수치화된 법칙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답 외에 다른 답은 틀렸습니다. 1 더하기 1은 2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1 더하기 1을 3

이라고 쓴 학생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가 받아들여 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으로 계산해서 비행기를 만들면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틀린 답을 다른 답으로 인정해 주면 그 인생은 추락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엄청난 붕괴와 낭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성’이라는 소위 젠더평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은 유혹이요, 시험이요,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본능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타인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기적으로 태어나셨지만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가 잉태되어 모태에서 자라고, 성장의 모든 과정을 자연의 창조질서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창조질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개입한 것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해가 멈춰 서고, 인간이 치유되는 기적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존의 창조질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창조질서의 모습을 보여준 기적이 부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연이요,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려서 본능을 만족시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창조질서요,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법칙, 만물에 있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둘 다 죽습니다. 인간이 왜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 도덕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뜻 아는 만큼 행하고,
모르면 머물러 기다리는 ‘참된 믿음’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14면에 계속)’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더넥스트 참가후기

준비위원의 취지와 목적, 의미설명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전망하는 토론회와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가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를 개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세상 세미나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빠져있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세미나는 바로 그 빠진 조각을 채우는 것이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지금의 재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재난의 근본원인이 자연과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제 동물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빠진 조각이 있다. 동물과 인간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생각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빠져있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세미나는 바로 그 빠진 조각을 채우는 것이었다.

세상을 넘어 기독교 교단에서도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성도다. 목회자 관점에서의 전망과 해석은 있지만, 성도의 시각이 빠져있다. 나는 기독교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를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곤 한다. 비유하자면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대에 마차 이야기만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 이동수단이 바뀌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차만 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차의 성능을 개선할까 생각만 몰두하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하나는 성도들의 참여도가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가 2만4천여 명에 달했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양적인 규모만이 아니었다. 질적인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보통 서베이(survey)에서 주관식 설문지에는 한두 줄 정도 적는다고 하는데, 온누리교회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에서는 5백 자 한도를 다 채워서 낸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번 서베이는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빅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중요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성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시작한 것이 성도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이라는 점이다. 이제훈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당회 리더십들이 이러한 생각을 먼저 내놓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내가 온누리교회와 한국 교회에 희망을 갖는 이유이다.

내가 교회에 희망을 갖는 이유

코로나19 시대 세상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세상의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람이다. 국제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나는 지금 국제사회가 마치 지휘자 없는 합창단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는 한두 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마치 지휘자가 없는 합창단 같아서 아름다운 화음대신 불협화음만 내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몫**

지난 몇 달 동안 지구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집에 갇혀서 지냈다. 내가 리비아에서 근무하던 시절 1년 6개월 동안 갇혀서 지낸 적이 있다. 9년 전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원인은 다르지만 전염병과 전쟁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 때는 공급이 있을 때 지하실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폭격이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생필품도 사라지고 제한된 범위이기

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했다. 그 전쟁은 6개월 만에 끝났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한동안 오히려 더 큰 혼란의 기간이 찾아왔다. 그 혼란한 시기가 지나도 다시는 전쟁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리비아 내전이 끝난 지 9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시 이전처럼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가 먼 나라 이야기고,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지구촌에서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에는 정반대 방향의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만,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나라만 잘살면 된다는 흐름이다. 하나는 열린 사회이다. 이동이 자유롭고, 서로 협력하는 세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닫힌 사회이다. 이동이 차단되고, 고립된 세상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어느 길로 가게 될지 궁극적인 결정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세미나가 우리의 몫을 하는데 통찰과 지혜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가자 소감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막강한 전염력을 자랑하는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잠식했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선사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변화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일상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누구도 먼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는 현실이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나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싶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길을 온누리교회의 훌륭한 믿음

의 선배님들과 함께 찾고 싶은 마음으로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세미나에 참가했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위기 너머의 기회와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인 복음 증거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고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필연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게 하였고, 동시에 온라인 중심시대라는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 노멀, THE

NEXT?’ 세미나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다만 온라인 중심의 세계는 무한한 확장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립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공존한다. 다행스럽게도 온누리교회는 이미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온라인 문화의 가능성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 몇 명의 지혜가 아니라 가능한 많은 성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방향을 선택한 온누리교회의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 한국 교회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와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재앙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온누리교회는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널리, 더 깊이 선포하는 믿음의 선봉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위해 개인 신앙의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요즘이다. 온라인 중심의 신앙생활은 편리하고 제약이 적지만, 동시에 나타낼 수 있고 무분별한 영적 탐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온라인 시스템이 주는 하드웨어적 장점은 사용하되, 소프트웨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신뢰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성민 형제
(요셉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변동코이노니아

코로나19로 인해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변동코이노니아 예소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던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 활동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그림에 대한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열정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오전 7시,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평소같이 일어나는 선영씨. 평소 예소에 출근할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색연필과 물감을 이용해서 채색작업을 합니다. 선영씨는 화려하고 섬세한 작업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미술도구와 재료가 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소에서 그림을 그리던 일과를 집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주변의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음악을 즐겨 듣는 선영씨는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기다립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화가 석희씨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석희씨는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 천사와 마귀, 솔로몬의 재판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는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매일 오전 QT를 한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석희씨의 하루는 잠들기 전에 다시 예소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

여전히 함께인 것을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매일 그림을 그리며 동료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는 최선영 작가.

리 됩니다. 석희씨의 안부를 확인하는 아침전 화에 석희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위로와 힘이 된다고 고마워하십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신 봉사자와 후원자들도 지금의 사태로 인해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안부연락을 주십니다.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권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장애

인 친구들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격려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소 장애인 작가들의 그림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예소를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주신 카페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예소 활동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품 40여점을 전

시 중인 3곳의 카페에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림 작품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국면의 소통인 것 같다고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랜 후원자 중 한 분은 예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된 사연을 방송출연을 계기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소 작품을 구매해서 함께 출연하는 분들에게 선물하면서 이 세상과 이 시국에도 우리가 여전히 함께인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과 봉사자, 후원자의 생기 있는 웃음소리와 숨소리, 대화 등 익숙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변동코이노니아를 위해 기도와 후원, 봉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 이정원 사회복지사(변동코이노니아)

예소 작품 전시 및 판매 중인 카페
열씨엘로 카페: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5 지하 1층
오페라빈로스터즈: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33-7
나시타카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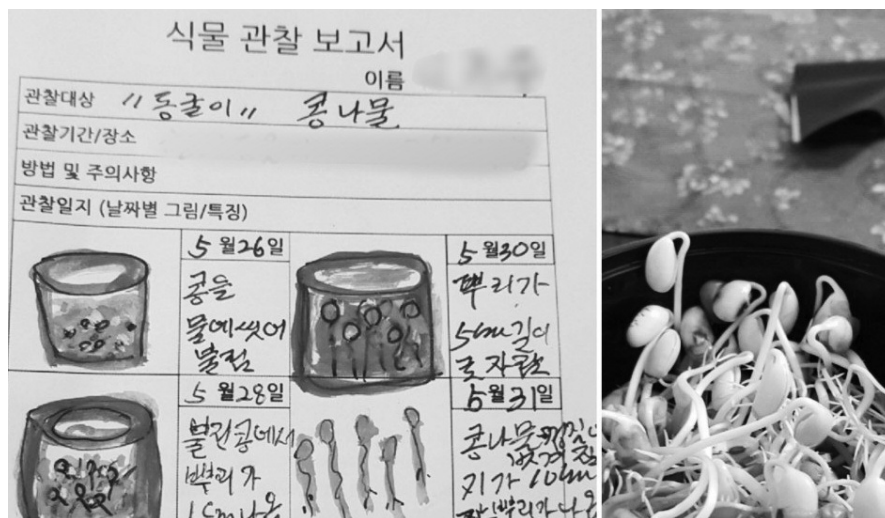
온누리복지재단 청파노인복지센터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청파동, 푸른 언덕에 위치한 청파노인복지센터는 하루하루 어르신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파노인복지센터 휴관이 장기화 되었지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한 서비스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휴관으로 직접 뵈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친근한 직원들의 모습을 담아 코로나19 예방법, 어버이날 감사영상, 건강지킴 홈트 따라 하기 등의 영상을 제작해서 SNS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간혹 댓글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청파노인복지센터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후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 서울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영원무역, LG생활건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사회 기업들과 연계해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과 집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쌀과 식료품키트 등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후원을 통해 청파노



한 어르신이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나눠준 '콩나물 키우기' 일지를 썼다.

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홀로 보내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콩나물 키우기'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도 없이 TV만 보시는 어르신들과 만사가 귀찮다며 생

고 프로그램 참가를 독려했더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콩나물을 기르면서 작은 생명체에 이름을 지어주는 등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콩나물 기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어르신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그런 활동을 하나"며 손사래 치

시던 손씨 어르신은 물만 줘도 쑥쑥 잘 자라는 콩나물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김씨 어르신은 콩나물 기르기 활동일지도 작성하시면서 무엇인가 매일 할 일이 생긴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약한 자를 돌보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청파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작고 소소하지만 콩나물 기르기를 시작으로 친구와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일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덕분에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소독용품까지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어르신들 만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코로나19를 어르신들과 함께 이겨내는 청파노인복지센터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02-703-6011

/ 조의진 팀장(청파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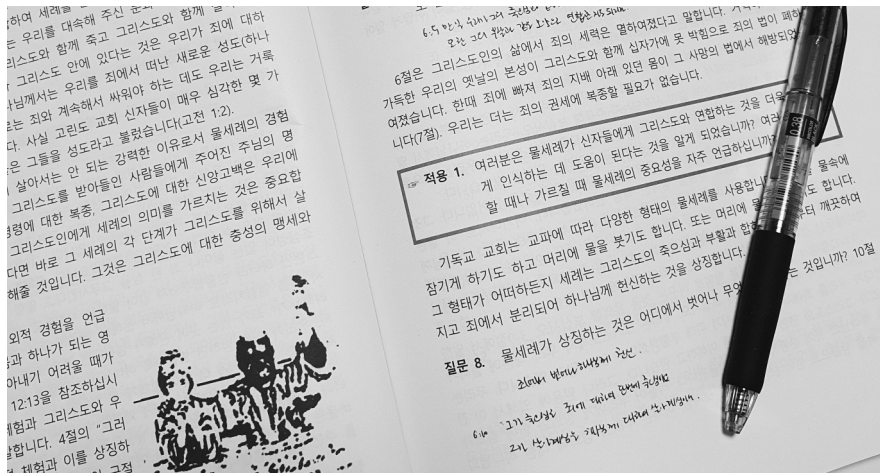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로마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23).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말씀에 적힌 대로 복음을 더 알아가고, 복음에 더욱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로마서 과정을 신청했다. 평소 로마서를 좋아하는 나의 취향도 선택에 한 몫 했다. 첫 강의에서 로마서 수강의 핵심은 “자기가 직접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통독계획을 짜면서 기대함으로 수강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약속이 사라진 상태에서 퇴근 이후 듣는 로마서 강의는 정말 꿀같이 달았고, 항상 기다려졌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소망 없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지, 복음을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에는 자유를 가져야 하는지 등 로마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천천히 배웠는데 모든 시간이 감격이자 감사였다. 한두 문장으로 요약된 복음이 아니라 16장 로마서 책 한 권을 통틀어 설명하는데,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깊고 신비한



김지혜 자매의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로마서 강의노트.

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감탄하는 시간이었다.

로마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통독과 묵상으로 진도를 따라갈 수 있어 좋았다. 또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큐티를 함께 묵상하면서 복음이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올해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 진도, 이어지는 로마서 큐티까지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한다.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개인적인 감사제목이 있었다. ‘못해 신앙’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던 대학시절 섬기던 영아부에서 매주 함께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되고, 좋으면서도 알 듯 말 듯 했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로마서 말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고 있다. 독해력이 상승해서가 아니

라 대학교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삶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구원을 받고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깊은 절망에서 다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해는커녕 알지도 못했던 복음의 내용들, 삶과 교회와 나아가 선교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복음의 열매들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른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모습이 로마서 말씀을 마주한 이후 변하는 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 삶이 복음의 증거이고,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 복음이 내 안에서 더욱 완전해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짧지만 보석 같았던 로마서 강의를 허락하신 주님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어준 온누리교회, 매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중현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김지혜 자매(SNS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온누리교회의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은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온라인 양육환경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참여에 대한 고민이 잠시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요셉공동체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통한 공적인 영역 못지않게 믿음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양육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과 실천을 위한 복음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세밀한 사전준비와 교역자님들의 많은 헌신과 열정으로 시작된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다. 매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채팅으로 출석을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나눴으며, 주차별 소감문을 작성했다. 교역자님들로부터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피드백과 소통을 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온오프라인의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졌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기다림과 깨달음의 감동으로 7주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윤희 자매는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을 수강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자 기쁨의 서신이다.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와 같은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의 특수성을 비롯해서 교역자의 부재와 꾸준한 양육훈련 부족과 이단의 공격 같은 배경적 지식을 알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보낸 서신을 통한 믿음의 권면은 나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 한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성령의 교제를 ‘기쁨’으로 하라

는 것과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그것이 다(빌 4:1-7). 그동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한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쁨, 관용,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었다. 빌립보서를 통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평생 끝까지 않는 성화를 위한 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빌립보서 과정은 매시간 유익했다. 가장 울림이 있던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곡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지위를 가지셨지만 자기부인과 내려놓음으로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자기검열의 과정에서 직면한 것은 세상 속에서 안정된 삶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며 자기연민과 상처들로 갈등하고 있는 자아의 불안정성과 연약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안에서(εν Χριστώ, in Christ) 기도로 간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인격적인 일치를 이뤄갈 때 가능하다. 결국 많은 시간을 씌움하면서도 심연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세계관과 영적인 변화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기독교는 주 안에서 잃을수록 얻을 것이 많은 역설의 종교다. 위기의 순간은 주권자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다. 이를 통해서 균형 있는 삶의 종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최윤희 자매(요셉공동체)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온 누리에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박성민, 정희진 선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과 카리브 해를 접하고 있는 작은 섬나라 도미니카공화국에도 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3월 중순부터 국경을 폐쇄하였고, 사회적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의료 인프라가 약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급작스럽고 심각한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빈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교회가 섬기는 이웃들에게 코로나19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나라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내리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지만, 빈민촌은 특별한 대책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거나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직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일거리가 생기면 나가서 일을 해야 식구들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수도도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라 식수와 생활용수를 사서 써야 합니다. 비도 오지 않아 빗물을 받을 수 없는 요즘은 기본 위생을 지키기 위한 물 한 방울도 아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온누리교회 비전현금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박성민 선교사가 빈민촌 주민들에게 비상식량을 지원했다.

그나마 여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뿐입니다.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교회 모임도 취소된 상황입니다. 5인 이상 모임이 제재되었고, 사람들도 만남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세계의 이웃들을 위해 헌금을 봉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 먼 곳에 있는 이웃들까지 한국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구나!’라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 100가정이 한 주민회로 묶여있었습니다. 지원하는 양이 줄어들지라도 100가정 모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따지지 않았습니 다.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저 먼 나라 한국에서 당신들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도지와 함께 격려를 전달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때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함께하는 마음을 고마워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으며 잠깐 인사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었던 마음이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힘내요! 고마워요!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길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해도 오고가는 눈빛 속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온누리교회의 온정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성민, 정희진 선교사(도미니카공화국)

태국 천대수 선교사

저는 태국 동북부 나콘라차시마에서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천대수 선교사입니다. 태국 동북부 지역은 옛날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이 어려운 곳입니다. 복음화율 0.1% 이하의 복음의 불모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현지인 교회 두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과 후 기독교 교실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영어, 음악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실을 통해 교회와 친해진 학생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학부모님들이 자연스레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지도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미래사역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6일부터 두 교회 성도와 가족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쌀, 라면, 계란, 간식 등 가장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차례 나눔사역을 실시했습니다. 두 교회 성도들과 군청, 각 마을 이장과 주민들, 지역 복지부 직원(공무원)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각 마을 이장들과 교회 리더들이 협력해서 나눔사역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나눠줄 때 교회 성도들뿐만



태국 천대수 선교사가 비누, 식량, 간식 등을 준비해 현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아니라 믿지 않는 주민들도 오셔서 물건을 받아갑니다. 그중에서 몇몇 분들이 “성경공부 모임이 언제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배드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민들도 있습니다.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많은 이들을 돕는 구제사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전도와 교회개척 사역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역 공무원들과 이장님 및 지역 유지들, 주민들 사이에서 어려울 때 돕는 한국 교회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여러 날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과 예배를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흩어지는 교회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지역으로 흩어져 예배와 주중모임을 이어갈 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에도 어렵게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하천가에서 모여 지내는 20가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 전부터 우리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비누, 라면, 간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지역과 7년 동안 관계를 맺고 섬기면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서로 웃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에는 환경과 역사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꾸준한 섬김을 통해 결국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때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천년 불교의 영향 아래 있던 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한번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천대수 선교사(태국)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습니다”

고사(枯死)위기 농어촌교회를 도움시다!

“가장 필요한 도움은 기도입니다”

남원 권포중앙교회 진우관 목사의 비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더 어렵고 힘든 곳이 있다. 미자립 농어촌교회다. 미자립 농어촌교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에서는 고사(枯死)위기에 놓인 농어촌교회를 직접 찾아가 사연을 듣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교회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권포중앙교회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권포중앙교회 진우관 목사와 오희정 사모.

백두대간 자락 고남산(해발 846m)을 뒤로 끼고 풍요로운 농지를 이룬 곳, 경상도와 전라도 경계에 위치해있어 두 지역 사투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고남로 285)에 오늘의 주인공 남원 권포중앙교회와 진우관 목사가 있다. 진우관 목사는 여러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고사하고 남원 권포중앙교회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15년째 사역하고 있다.

진우관 목사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푸근한 농촌 아저씨다.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렸고, 말투는 참 구수했다. 그런데 푸근한 농촌 아저씨의 신앙과 각오는 결코 순하지 않다.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방황과 죽을 고비 그리고 만난 하나님

진우관 목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였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스님이었고, 아버지는 절에서 온갖 일을 도맡아 하던 열혈불교신자였다. 교회로 치면 수석장로 역할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머니즘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주술이나 부적, 민간요법으로 병 낫기를 기원하던 집안에서 자랐다.

진우관 목사가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서울 사는 고모 덕분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조카에게 고모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불교

와 사머니즘으로 점철된 진우관 목사에게 고모의 말이 먹힐 리 만무했다.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며 대들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고모와 고모가 다니던 교회 목사의 부단한 노력으로 겨우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았다. 진우관 목사가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흐지부지 사라졌다.

진우관 목사는 젊은 시절 치기(稚氣)에 가득 차 제멋대로 살았다. 고향에 내려와서도 방황을 멈추지 않았다. 한탕을 노리며 사업을 시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고, 도박과 술로 재산을 탕진하기 일쑤였다. 객기 어린 싸움도 술하게 했다. 그렇게 시간과 재산을 탕진하다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죽을 뻔 했다. 아니, 죽었다.

26살 어느 날, 그날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을 더 마시려고 부엌에 에 들어가 맥주병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알고 봤더니 맥주병에 들어있던 것은 술이 아니라 농약이었다. 그것도 한 방울만 마셔도 죽는다는 고독성 제초제였다.

“술김에 맥주인줄 알고 마셨는데 농약이더라고요. 농약을 입을 대는 순간 술에 잔뜩 취했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의식이 없었다. 결국 입원 3일 만에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렸다. 영안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진우관 목사의 손발이 떨렸다.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

은 잠시뿐이었다. 고독성 제초제 후유증이 심각했다.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다는 농약이었으니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내장이 다 녹아버리고, 물만 먹어도 토했어요. 뼈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기도를 수차례 했다. 마지막으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죽을 각오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포기하고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며 터덜터덜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전도사님, 고생하시네요.”

그러면서 만 원짜리 한 장과 버스 토큰 세 개를 줬다. 신학생은커녕 죽을 궁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사라니. 영문을 모른 채 산에서 내려와서 중국요리집을 지나게 되었다. 술술 배어나오는 자장면 냄새와 볶음밥 냄새가 그렇게 황홀하기 그지없었다.

“그래, 이왕 죽을 거 볶음밥 한 그릇 먹고 죽을란다!”

아까 그 여자가 준 만 원으로 볶음밥을 시켜서 허겁지겁 한 그릇 툭툭 먹어치웠다.

“물만 먹어도 뱀어널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는데 볶음밥을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후유증까지도 고쳐 주셨어요.”

사람구실 못하고 방황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골수 불교신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너도 목사가 되는 학교에 가봐라.”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진우관 목사는 2001년 2월 남원 권포중앙교회에 부임했다. 당시 성도는 7명이였다. 대부분 할머니들이었다. 당시에는 사택이 없어서 예배당을 겸해서 사용했다. 진우관 목사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동네 분위기였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는 85가구 2백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는데 대부분 정씨와 강씨로 이뤄진 집성촌이다.

“집성촌이라 폐쇄적이고,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

더라고요. 게다가 마을 가까운 곳에 큰 절이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은 곳이고요. 정서적, 영적 울타리가 높게 둘러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먼저 마을 할머니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다. 할머니들 모시고 남원 시내 구경도 가고, 지리산 노고단이나 화개장터 같은 곳에도 모셔다 드렸다. 돌아오는 길에는 꼭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비싼 걸로 사드리면 할머니들께서 부담스러워하시니까 부담 없는 가격대로 식사를 사드렸어요. 그러면 할머니들도 마음이 편해서인지 다음에 또 가자고 하시거든요.”

마을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진우관 목사가 직접 상추농사를 지으면서 품앗이도 했다.

“조그맣게 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마을 할머니들께 일하러 오시라고 합니다. 할머니들께서 제가 일하러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쉬는 시간이 많거든요(웃음).”

열과 성으로 섬겼더니 성도 수가 늘어났다. 부임 당시 7명이던 성도가 18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다.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울 사는 자녀들이 위험하니까 교회가 지 말라고 한데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교회에 안 나오세요. 이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분들의 신앙이 주저앉아버리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은 기도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권포중앙교회를 온누리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우선 12인승 차량이 필요하다. 할머니들을 위한 이동 수단이자 전도수단이다. 그동안 진우관 목사의 승용차로 감당해왔는데 한꺼번에 더 많은 할머니들을 태울 수 있는 12인승 차량을 후원해서 힘을 보탤으면 좋겠다. 또한 진우관 목사는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뒤늦게 사회복지학 공부(학사, 석사)도 했다. 교회 뒤편 산자락에 부지도 마련해줬다. 진우관 목사가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으면 좋겠다.

문의: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

02-3215-3434

전문가 기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을 결정할 때 꼭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



한건수 교수
(수원 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삶에서 ‘공간지각 능력’이 있다는 것의 유익은 참으로 크다. 공간지각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공간의 이동이나 위치 관계 따위를 인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공간지각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가는 길의 올바른 방향을 쉽게 인식한다.

필자의 공간지각능력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한번은 퇴근시간 무렵 집으로 향할 때였다.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했다. 더 늦어지면 퇴근시간에 앞 다투어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도착시간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급한 나머지 무작정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운전했다. 20여 분 후에 드디어 다다른 곳은 낯익은 출발 지점이었다.

공간지각능력과 같이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시점이 있다. 바로 취업과 같은 ‘진로(進路)’를 결정할 때다. 취업을 앞둔 졸업 대상자나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필자와 같이 너무 급한 나머지 우선 출발하지는 생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2019년 5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기업의 평균 퇴사율이 20%정도였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1년차 이하 신입사원 퇴사율이 48.6%나 됐다.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취업 대상자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질문

인생에는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현재 어디에 있는가?’, 둘째,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다. 이동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다.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선택은 운전자에게 맡긴다. 삶에서도 두 지점이 늘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이유이자 힘이다. 당신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요 8:13-14).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방향 감각을 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며, 동시에 그분의 증언이 참된 이유다.

우리의 나침반은 어떠한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인식하고 있는가? 취업의 선택이 단순히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 혹은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위한 과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까?

‘현재 어디에 있는가?’라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다. <크리스천코칭 바이블> 저자 게리 콜린스 박사는 고객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코칭을 시작할 때 고객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도록 도우라고 한다. 이것이 원하는 미래의 방향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작지만 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다섯 가지 질문은 ‘지금까지 삶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은?’,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지금까지 삶에서 감사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이다.

현 위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어떤 기준으로 돌아보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 또한 달라지게 된다. 필자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질문은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다. 일상에 무기력함을 느끼던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은 필자에게 그 질문이 스치듯 지나갔다. 놀랍게도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프레젠테이션’과 ‘리더십’에 대한 키워드가 연이어 떠올랐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행복했고,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팔로워를 섬길 수 있는 역할이 좋았다. 당시에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키워드의 공통점은 사람의 변화를 돕고, 성장을 지원하는 삶의 가치로 연결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 없이 내가 선택했던 직업은 전공을 따라 매일 컴퓨터를 대면하며 프로그래밍 하는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질문을 통해 내가 향해야 할 미래의 위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전공과 무관한 직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도전을 하게 됐다.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필자의 낮은 공간지각능력은 어릴 적 경험한 사건에도 나타난다. 시골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이다.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사촌동생 몇 명과 함께 시골 마을을 뛰어다니며 놀던 중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길을 잃은 것이다. 사방을 돌아봐도 할머니 집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본 듯한 시골 풍경만 눈에 들어왔다. 신나게 뛰어다니던 나머지 얼마나 멀리왔는지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늘을 쳐다본 순간 종탑 위로 빨간 교회 십자가가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는 할머니 댁을 찾는 나침반이 되었다. 이처럼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목적

지를 파악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출 3:8).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일이 모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왔음을 모세의 질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출 3:11).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은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하다고 표현한다(출 3:10). 그의 내면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적합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끼며거리나 병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출 3:11).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선을 이동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향하고 있던 두려움에 떠는 모세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이자 힘이다. 만약 모세가 유창한 화술이 있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을까?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출애굽 시키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자 몇 명을 만나 상담한 적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좁아진 취업문에 많은 경쟁자를 의식해서인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내가 그들에게 한 일은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원하려는 일(직무)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일(직무)을 당신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현 위치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그 답을 떠올려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과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사진은 지난해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2020 임직자스쿨 온라인 개강

9월 8일~11월 14일 유튜브 채널

2020년 임직자스쿨이 9월 8일(화)부터 11월 14일(토)까지 유튜브 채널(일부공개, URL 추후공지)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임직자스쿨 대상은 591명이다. 명예권사 10명, 권사 200명, 집사 381명(남자 142명, 여자 239명)이다.

2020년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행복한 가정과 리더', '건강한 영성 건강한 리더', '부르심과 헌신', '세계를 품는 리더', '안수집사의 모델 권사의 모델',

'사회선교,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복지재단, CGNTV 소개', '전도', '일터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10주차에는 종강연합예배를 드린다.

임직자스쿨을 수료하려면 강의보고서, 독서보고서, 큐티 말씀묵상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강의보고서는 매주 온라인 영상강의가 업로드된 주간의 주말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된다(이메일 추후 공지). 이메일 작성이 어려운 성도는 수기로 작성

해서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독서보고서와 큐티 말씀묵상 과제는 수기로 작성해서 소속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분량은 독서보고서 3권(필독서 1권, 선택도서 4권 중 2권 선택), 큐티 말씀묵상 20일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1

양재 02-570-731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라인 새가족 새가족교육 실시

온누리교회 새가족교육팀에서 온라인으로 새가족교육을 실시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싶은 성도는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새가족교육팀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청자들에게 교육안내 연락을 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2, 양재 02-570-7396

서빙고 대학청년부 02-3215-3744, 양재 대학청년부 02-570-7521

서빙고 차세대 02-3215-3521, 양재 차세대 02-570-7553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두란노문고 '스탬프 팡팡' 이벤트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스탬프 1개 제공

두란노문고에서 '스탬프 팡팡'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두란노문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서, 음반, 문구류 중에서 1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스탬프 1개를 제공한다. 스탬프 6개를 모으면 10% 할인, 스탬프 12개를 모으면 10% 할인 및 포인트 5%를 적립해

준다.

두란노문고 '스탬프 팡팡' 이벤트는 서빙고점과 양재점에서만 진행된다. 스탬프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일부품목 제외).

문의: 서빙고점 02-796-2310

양재점 02-573-4704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능통하거나 기업재무관리 경력이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양간증문 포함)를 구비해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기독교상담학과, 홈페이지 신청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독교상담학과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독교상담학과 가을학기는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총 12주 동안 이어진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월요일반에서는 손철우 교수(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인간이해', 김미희 소장(SoH영성심리연구소 소장) '정신역동'을 강의하고, 월요일반에서는 한재희 원장(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장) '상담기초', 김안배 소장(한국목회상담연구소(KIPC) 소장) '상담실제'를 강의한다. 화요일반은 김형근 소장(서울종독심리연구소 소장) '중독상담', 조병은 소장(마음과 감정 상담연구소 소장) '청소년상담'을 강의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기독교상담학과 가을학기 수강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반 별로 28만 원이다. 8월 25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2078-3456

7월 비전헌금 1억3천만 원 봉헌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지난주(7월 11일~12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7월 비전헌금 1억3천만 원을 봉헌했다. 7월 비전헌금은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은 고령화와 탈농촌 현상으로 인해 성도 수 감소 및 교회 시설 노후라는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들어졌다.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예배 중지 요청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다.

농어촌선교팀은 매월 정기적인 재정지원 및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보수 및 차량 지원, 교회사역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다.

/ 정현주 기자



NGO 더멋진세상은 제3세계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5차 긴급구호

6월 비전헌금과 사랑챔버 후원금 사용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7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5차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메트로 마르디와류요 지역 병원에 진단키트 1천 개를, 람퐁족 바투바닥 마을 주민들과 툼람바왕 지역 교회 장애인 공동체와 극빈층 성도들에게는 쌀 15톤과 설당 1천6백kg을 지원했다. 위스마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학생

들에게는 보청기를 선물했다. NGO 더멋진세상 인도네시아 5차 긴급구호에는 1천4백8십만 원이 쓰였다.

6월 비전헌금 일부와 온누리교회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사랑챔버가 후원한 200여 만 원을 사용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여 명(7월 16일 기준) 넘어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멘토와 함께 하는 티타임'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 개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유튜브 채널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을 개설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에서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멘토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

려움부터 부부갈등,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과 같은 심도 있는 고민까지 솔직담백하게 나눈다.

성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사전에 신청 받아 멘토가 답을 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이메일(motherschool@korea.com)로 하면 된다.

문의: 02-2182-9114

/ 홍하영 기자

복음의전함 복음광고 인쇄용 파일 제공

홈페이지 신청, 교단소속증명서 제출

광고선교단체 '복음의전함'에서 복음광고 인쇄용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복음광고 인쇄용 파일 디자인은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등 8가지 기본 디자인과 스페셜 디자인

인 'It's Okay! Korea!(코로나19)'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복음광고 인쇄용 파일 신청은 복음의전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작성하면 된다. 광고 파일을 인쇄해서 교회 외벽, 개인사업장,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붙이면 된다. 문의: 02-6673-0091

꼭 한번 봐야 할 연극 <라스트 세션(Freud's Last Session)>

가상으로 만난 ‘프로이트’와 ‘C.S. 루이스’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논쟁

영국과 독일이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그즈음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최고의 변증론자로 손꼽히는 C.S. 루이스가 1939년 9월 3일 런던에서 만났다. 그리고 논쟁을 벌였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바로 그 논쟁이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라스트 세션(Freud's Last Session)>이다. 미국의 극작가 마크 세인트 저메인이 아멘드 M니콜라이의 저서 <루이스 VS 프로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프로이트의 초대를 받은 C.S. 루이스가 런던을 방문하면서 논쟁이 시작된다. 프로이트의 저서를 읽고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논법을 이해한 C.S. 루이스는 프로이트에게 신에 대해 변증하기 시작한다. 극중에서 프로이트는 구강암에 걸려 사망하기 3주전이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삶과 죽음, 신과 종교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극은 2011년 오프브로드웨이 열라이언스 최우수신작연극상을 수상했고, 2년 동안 775회 이상 공연했다. 그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일 막 오른 초연에서는 배우 신구와 남명렬이 ‘지그문트 프

로이트’ 역을, 배우 이석준과 이상윤이 ‘C.S. 루이스’ 역을 맡아 열연했다.

프로이트와 C.S. 루이스는 누구인가?

사실 프로이트와 C.S. 루이스는 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들의 만남을 가상으로 성사시킬만한 이유가 있다. 무신론(이성주의)과 유신론을 대표하는 지성들의 대화 자체가 흥미롭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주제들의 논쟁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감명 받아 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정신분석학을 연구하고 정립했다. 무의식을 발견하고 인간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인간의 성격이 7살 이전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적인 주장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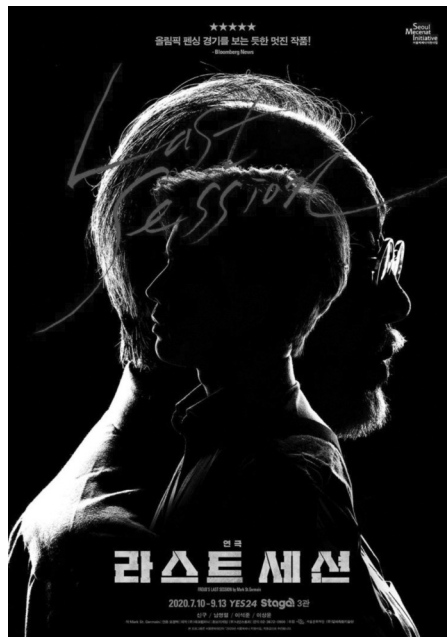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성주의를 낳았고, 이성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탄생시켰

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종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C.S. 루이스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천 소설가이자 변증가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었다가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R. 톨킨을 만나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나니아연대기>같은 대중적인 소설부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소설, <순전한 기독교>, <네가지 사랑>, <헤아려 본 슬픔>같은 신앙서적들도 여러 권 출간했다.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그리고 다시 유신론으로 돌아온 탕자인 C.S. 루이스는 대중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의 신앙을 전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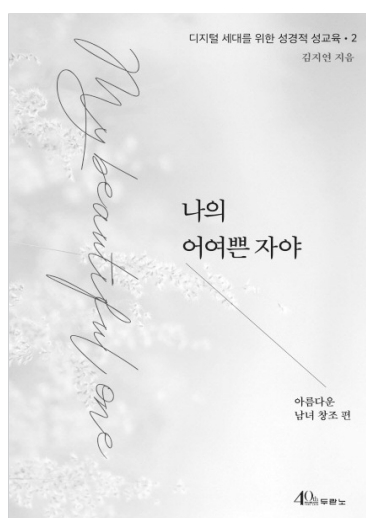
연극 <라스트 세션(Freud's Last Session)>은 14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공연한다. 9월 13일까지 대략로 예스24스테이지 3관에서 막 오른다.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 신간소개

성경적 성정체성과 성교육



<나의 어여쁜 자야>
김지연 저 | 두란노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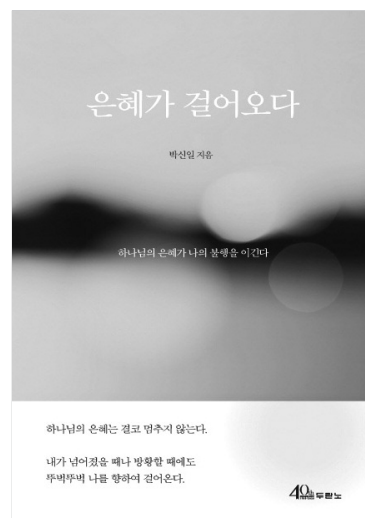
김지연 약사의 ‘디지털 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그 두 번째 책 <나의 어여쁜 자야>가 발간됐다. 성교육을 위한 준비, 미디어와 음란물에 대해 다룬 <너는 내 것이야>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은 왜 여자를 남자의 종으로 만들었냐”고 묻거나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어렵듯이 기억나는 어느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힘겹게 끄집어내서 어설프게 대답했다가 자녀가 되묻거나 꼬투리라도 잡으려들면 큰일이니까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성교육을 받고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어여쁜 자야>에서는 성경적 성정체성, 남녀의 차이, 트랜스젠더리즘과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 성경 말씀과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

다. 무엇보다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정체성을 심어 줄뿐만 아니라 성경적 성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싶은 이 시대 모든 부모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나의 길이 멈추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은혜



<은혜가 걸어오다>
박신일 저 | 두란노 | 14,000원

“이 책은 설교집도 아닌데 은혜가 있고, 성경공부 교재도 아닌데 공부가 되고, 논문도 아닌데 깊은 지식을 담고 있다. 책 한 권에 이런 함축적인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음에 놀라기만 하다.”

컴미션 미주대표 이재환 선교사가 쓴 서평이다. <은혜가 걸어오다>를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은혜가 걸어오다>의 저자 박신일 목사는 야곱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가 타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읽으면 내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 문제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박신일 목사는 야곱의 인생을 ‘속이는 자, 복을 가로채다’, ‘도망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멈추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붙잡다’ 세 파트로 나눠 설

명한다. 박 목사는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야곱의 삶을 조명하면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나의 길이 멈추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 온라인 큐티스쿨 참가자 간증



/ 안현주 성도(강남E공동체)

큐티는 나에게
리트머스 시험지

온라인 큐티스쿨을 수강하면서 큐티에 대해 더 이해하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큐티를 하다보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큐티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의 내용별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묵상한 말씀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의 내 영적상태를 더욱 잘 볼 수 있고, 날마다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적고, 실천하다보니 기쁨이 생기는 것이 느껴졌다. 묵상한 말씀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내일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생길 적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다. 적극적으로 큐티하면서 큐티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자메시지라는 말씀이 이해가 됐다.

큐티는 나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온라인 큐티스쿨 수강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관계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했다. 그 시간을 보내며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선한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꾸준히 교회사역에 참여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았지만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큐티스쿨을 들으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기를 바라게 되었다.

순예배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순예배가 유일한 큐티나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까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정리가 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큐티나눔에서 내가 나누는 것은 내 삶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 순예배를 통해 내 삶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온라인 큐티스쿨을 수강하면서 함께 성경통독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큐티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읽고 있다. 큐티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동안 큐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셨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큐티스쿨 참가자 간증



/ 정은실 성도(양재공동체)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내가 큐티(QT)를 처음 배운 것은 대학생 때 선교단체 'Navigator'에서다. 처음 큐티를 배우고는 나름 열심히 했다. 직접 빈 노트에 묵상 내용을 적어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 시간으로 정해두었던 아침 첫 시간을 놓쳤다. 건너뛰는 날도 많아졌다. 한동안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질 정도로밖에 말씀을 접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큐티에 대해 배우고, 큐티 생활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다. 10여 년 전 퇴직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도록 하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꼭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간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 의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타성에 젖어 형식적이고, 시간 때우기 급급한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온라인 큐티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큐티에 대해 또 다시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온라인 큐티스쿨을 통해 큐티의 목적을 되

새기게 되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모세,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제시해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목사님의 강의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큐티의 모델인 예수님과 다윗을 나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묵상하기'의 실제적 지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알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보라"면서 제시해준 여러 묵상 내용이 실제 큐티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생명의 삶>의 본문인 신명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 묵상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신명기를 다시 묵상해보니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등장인물의 연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해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등을 자문하며 묵상한다면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강의를 참고해서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큐티를 해나가고 싶다. 은혜롭게 강의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수상작



/ 유형남 선교사(캄보디아)

CGNTV는
멋진 기독교 학교

불교국가 캄보디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과 우상이 넘치는 곳이지만, 낙원학교 아이들은 주님의 율타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30명의 아이들과 39명의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9명 모두 현지인이고, 한국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낙원학교는 주님이 이끌고 계시고, 저는 구석구석 청소하며 돌보는 심부름꾼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길 잃은 한 영혼인 저의 손을 잡고 학교에 입학 시켜 주셨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CGNTV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과목이고 교과서입니다. '생명의 삶'은 매일 매일의 등대요 나침반 수업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시간'은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충전 수업시간입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와 '어린이 예배', '예수님이 좋아요' 시간은 교구를 어떻게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성경공부를 지도해야

하는지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침반 바이블'은 낙원학교 공식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하늘빛 향기'를 통하여 주님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7년 3월 30일 김범준 집사님이 간증하는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학교사역을 시작하고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주는 학교허가를 준비하는데 로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학교 로고가 없었습니다. 학교 로고에 기독교 정신을 담을 수 있는 분을 기도하며 찾고 있었는데 김범준 집사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CGNTV는 저의 평생학교입니다. 저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영적학교입니다.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GNTV는 세상 곳곳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지친 이들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며, 영혼을 살리는 멋진 기독교 학교입니다. 졸업장은 천국 가서 주님께 받을 것입니다.

CGNTV 시청수기 공모전

기간: 8월 28일까지

문의: 02-3275-9518

■ 마리아행전 참가자 간증



/ 이나비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삶으로 가르치기

코로나19가 말뚝을 피우기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남편의 가나인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예민지수 높은 자녀들까지 더해져 우리 가족의 '집콕생활'이 시작됐다. 주부인 나는 열심히 밥하고, 집안일을 했다. 살을 부비며 지내는 시간에 지쳐갈 무렵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가정에 감사의 율타리를 쳐주었다. 차세대에서 시작한 40일 성경쓰기와 50일 성경쓰기, 얼마 전 시작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의 의지를 느끼고, 더욱 사랑하도록 만드신 시간들이었다.

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마리아행전이 시작됐다.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마리아행전에서는 스태프로 섬겼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분 한 분께 팔찌를 채워드렸다. 안전수칙을 몇 번씩이나 확인하며 아주 작은 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 진행을 도왔다. 마리아행전 첫날을

지나며 안전수칙에 발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차분하고 질서 있고 조심스럽게 모든 절차에 임하는 성도님들의 성숙된 모습이 큰 감사로 기억된다. 순결한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리아행전에서 들은 말씀 중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는 메시지가 크게 와 닿았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 시대가 안타깝고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관계들 속에서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쟁기느라 정작 가족을 깊이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회개했다. 가정 안에서 교제의 중심에 선 아내이자 엄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동치며 변화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가르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장로칼럼

성경관찰

하영철 장로
(성북공동체)

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앙으로 ‘서로 거리두기’의 실존(實存)에 처해 있고, 대안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하루 속히 이 사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절감하면서 20여 년 전 읽은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워드 헨드릭스와 윌리엄 헨드릭스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다. 이 책 첫 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유명한 성경구절을 예시로 들며 성경을 어떻게 읽고 관찰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사도행전 합본(合本)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연속해서 읽으며 관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일러주는 관찰내용을 따라 성경을 읽다보니 성경을 관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는 귀납적 개인 성경연구(PBS)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책은 ‘관찰-해석-적용’이라는 각각의 단계에 대한 건강하고 적절한 관점을 바탕으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일러주는 특별

하고 정말 귀한 책이다.

성경 관찰에 대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소개한다. 옛날 부흥회에서 들은 이야기다.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 교수로 유명한 저자가 입학생 첫 강의에서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며 관찰한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영상에는 어느 중년의 신사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잔디를 걷어가는 장면이었다. 영상을 관찰하며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신사의 키와 나이, 옷 색깔, 파이프 모양, 연기, 날씨 등 800여 개가 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적어낸 답변은 겨우 30여 개뿐이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을 읽을 때도 관찰의 폭을 넓히려는 뜻이다. 성경을 깊이 있게 관찰하며 그 안에 숨겨진 지혜들을 발견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하며 나아가야 한다.

지난 온누리교회 33주년 기념예배에서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3M(Movement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Maintenance 현상 유지하는 교회, Monument 박물관화 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순예배가 말씀 나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을 함께 나누야 한다고 전하셨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우리 안에 올바른 말씀이 세워지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관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빠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말씀이 육화(肉化)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날 줄 믿는다.

권사칼럼

두려움 너머에 있는 소망

최경미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일상생활의 제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감해지는 시기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조금씩 나태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과연 코로나19의 끝이 있을지,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올지,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등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러던 중에 마리아행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리아행전이 시작되기 전 언론에서 교회의 모임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점점 높을 때마다 과연 마리아행전을 진행할 수 있을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불안했던 마음은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마리아행전 안내영상을 보고 안정이 되었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했다.

마리아행전은 모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지면서 진행되었다. 교회에 들어가면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을 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모두 한두 칸씩 자리를 떨어져 앉으며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안전수칙을 모범적으로 지키면서 진행되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역시 온누리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드리는 예배였지만 여러 지체들과 함께 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격스러

웠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마리아행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었다. 두려움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한 지역, 한 국가, 한 대륙 나아가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된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하며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다짐을 하게 된 마리아행전이었다.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은혜였다. 현재보다 나은 상황은 내가 그려보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온누리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김선재 목사
(서빙고 차세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다. 마을에 들어서는 어귀에서 딸찍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 빨간 지붕과 십자가 탑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12월 말에 부임했으니 한겨울, 눈이 많이 올 때였다. 제법 쌓인 눈으로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진 경치를 바라보며 교회 초입에 다다른 순간, 교회로 올라가는 언덕의 눈들이 말끔히 쓸려 있는 게 아닌가. 언덕 끝부분에 목사님께서 홀로 눈을 끌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다. 눈이 와서 평소보다 일찍 출발해서 여유를 부렸는데 생각이 짧았다. 죄송한 마음에 재빨리 뛰어가서 빗자루를 건네 받으며 “목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목사님은

슬며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 전도사, 첫눈은 쓸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첫눈을 쓸어놓으면 다음 사람들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 우리 집안은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내 자녀들 좀 봐. 편안히 잘 들어가잖아. 김 전도사는 모태신앙이지? 감사하며 살아.”

짧지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다. 돌아보면 일반 학부를 졸업하고 정말 치열하게 준비해서 취업과 진로가 결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짧은 유학생활 중에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결정을 하고 부모님께 연락드렸다. 지금 생각해보도 부모님의 대답이 너무나 단순명료했다. “잘했어!”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 한마디였다. 참 감사했다. 물론 훗날 “내가 태어났을 때 머리에 십자가가 있었다”거나 “혹시나 목회자의 길을 걷지는 않을까 널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내색은 하지 않았다”는 등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들에 관

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다. 더불어 부르심의 시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어 평생 신앙의 동역자로 섬기고 있다.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너무도 확고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인도하심 사이사이에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치부 시절에는 전도사님의 커다란 설교 그림 뒤에 설교문이 적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 흉내를 내기도 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예수님이 좋아요>로 QT를 시작했다. 그때 시작했던 목상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음에도 감사한데, 온누리교회에 부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요>를 집필하는 집필팀에 속해 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 때 지독한 사춘기로 방황도 했지만,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누리교회 차세대 부서인 꿈땅을 섬기고 있다.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추억을 심겨주고 싶다. 훗날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반석 위에 서 있도록 주주를 든든히 세워 이곳에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고 싶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빗자루를 들고 눈 덮인 길을 쓸어갈 것이다. 감사한 것은 온누리교회에는 함께 빗자루를 들어줄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신앙의 동역자다.

오늘도 마주앉아 체온을 전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심겨질 신앙의 씨앗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첫눈 쓰기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시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
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
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6절).

첫 번째 공격 장소는 광아였는데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광아와 성전 꼭대기는 대조적입니다. 광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 장소를 옮겼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모험입니다. 안 해도 되는 모험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이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한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7절).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시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시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이고, 그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머물러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순간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지 않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세 번째 시험 장소는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강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을 미리 보여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8-9절).

마귀의 소원은 단 한순간이라고 하나님처럼 되어 보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분명 거짓과 속임수를 했습니다. 마귀는 약속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

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의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표어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영혼은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 분만을 섬기라’”(10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영혼은 결코 어둠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엇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든지, 인간의 본능이든지, 자신의 욕심이든지,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는 가치 있는 것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닐 때 반드시 사람은 자신이 경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그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우리는 약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마치 한국의 가을을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란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는데 코로나19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말라위도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과 보건소가 있는 릴랑궤(Lirangwe)는 마을에서 7km 떨어진 곳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먼 거리임에도 교통비 문제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릴랑궤로 가려면 7미터 정도의 개천을 건너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건너지만, 우기 때는 도랑이 크게 범람해서 통행이 어렵고, 무리하게 이동하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다리 건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리 건축을 원한다면 ‘주민들이 가진 자원은 무엇인가?’, ‘주민들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약 1년 여 동안 주민들은 틈만 나면 다리 건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동 없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NO!”를 했었는데 매번 거절하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직원을 통해 이곳 포스트 마쉴라니 마을뿐 아니라 주변의 2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짓는 '희망의 다리'

주민들까지 협력해서 다리 건축을 위한 돌과 모래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나르다가 못하겠다며 그만 두겠지...’라는 다리 건축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주듯이 3개 마을 주민들이 명단을 만들고 순번까지 정해서 돌과 모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착공해도 좋을 만큼 모인 충분한 모래와 돌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5월 초부터 포스트 마을라니 마을 외 2개 마을과 NGO 더멋진세상이 함께 다리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중에 부족한 모래와 돌은 계속 주민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값이 나가는 건축 자재들과 인건비는

NGO 더멋진세상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다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릴라케 지역으로 가는 거리가 4km정도 축소됩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보건소 접근이 쉬워지면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건너는 이 다리가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
원에 이르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이석열, 박민영 선교사(말라위)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가정사역 강종웅 김준홍 ■ 강서 김민주 송은영 김중연 홍승수 박은정 김규옥 이시랑 오연수 정용석 강희찬 조희선 송승삼 ■ 강춘 김용환 제무성	신영미 김형기 ■ 관악금천 구윤희 연명은 이원희 서정원 이주현 윤연정 이진애 한대인 정문수 이찬주 ■ 광명 노연정 박정록 ■ 동대문중앙 강민지 김용곤 권항숙 박은진	■ 동작 서영숙 정주희 ■ 마포 남상희 박윤자 박수연 박윤자 박재홍 홍광식 홍이진 배성은 ■ 북부리 문광배 박경하 정영광 정태욱 ■ 서대문	김선영 황혜영 박민영 신영주 박정진 박미실 정효성 윤수원 ■ 서빙고 김성연 임한나 채명진 김승연 최유원 박용은 ■ 성동공진 김민지 김선희 김현경 김정순 어진주 이나연 우선철 김이준	윤규영 황호영 차혜영 양지혜 ■ 성북 노형재 최윤기 유미현 이승혜 조수연 정현숙 ■ 신용산 김성중 정우진 원주희 최은정 최현숙 임지원 ■ 양천 이은정 김정연	이해옥 조선녀 최현숙 박금자 ■ 여의도 안익재 조덕규 ■ 영등포구로 김은정 강윤정 김진균 신태수 박성희 강문희 신혜숙 이윤상 이상임 이종미 정진형 김민수 ■ 이수	김경진 오미연 ■ 이촌 박용근 정지태 박훈민 이경호 심광아 김지영 윤다슬 박숙자 이윤경 박미선 최영준 한필규 홍유정 임수잔 ■ 중종로 김재범 윤민학 김효진 김준규 심혜영 허성연	안진아 이은정 엄경환 홍진섭 ■ 찬양사역 장현호 김병열 ■ 특별한초대 김재욱 장창근 ■ 한강 감미진 최윤순 권유진 유기남 감지원 이은정 임광수 배문기	■ 공동체예음 박정권 천성윤 이지유 조영아 조정현 황영진 진현정 박은진 탁 현 최완석 ■ OCC 변병설 정승호 임선양 조애신 ■ OEM Hanna Lee 권수진 ■ S브릿지	고성태 김현주 고유진 김승민 김도균 정세화 김은선 권오선 김희전 장은정	나지영 이희진 노윤미 손선영 손현정 김병희 이서현 김지민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 서빙고 ■ 신동식 목사반 김득신 김방실 김수환 김순옥 김영숙 김진자 김충진 김태현 서 혁 양지은 이상백 이영미 정두식 조혜원 차현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CGNTV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만나보세요

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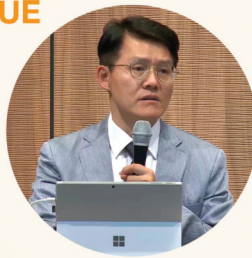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아동 그림 치료로 살펴보는
자녀의 마음

오종은 박사 / 마음아뜰리에 대표

월요일 오후 7시 40분

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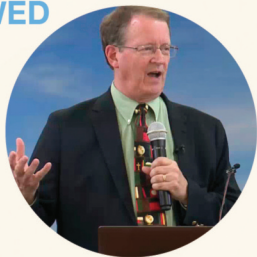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성경 속 시대 배경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는 말씀

류모세 선교사 /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화요일 오후 7시 40분

WED



창조신앙교육축제

과학적 증거로 알아보는 창조신앙

앤드류 스넬링 박사
Answers in Genesis 연구원

수요일 오후 7시 40분

THU



도전적 질문? 합리적 대답!

기독교 변증으로 증거하는 복음

김기호 교수
한동대학교 기독교 변증학

목요일 오후 7시 40분

FRI



2020 목회사관학교

R.T. 켄달 목사가 나누는
예수를 따르는 삶

R.T. 켄달 / 전 웨스트민스터채플 담임목사

금요일 오후 7시 40분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CGNTV 시청 안내

I P T V KT Olleh tv ch.237 SK B tv ch.302 LG U+ tv ch.271
케 이 블 D'LIVE ch.304 LG헬로비전 ch.288
gcs푸른방송 ch.159 현대HCN ch.550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



CGNTV
유튜브 채널

